

한국리서치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12개국과 뉴욕, 런던,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 등 가치관을 조사하여 최근 발표하였는데, 이 중 아시아에서는 서울, 도쿄, 북경을, 아시아 외 지역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, 프랑스 파리의 시민만을 꼽아 6개국 시민의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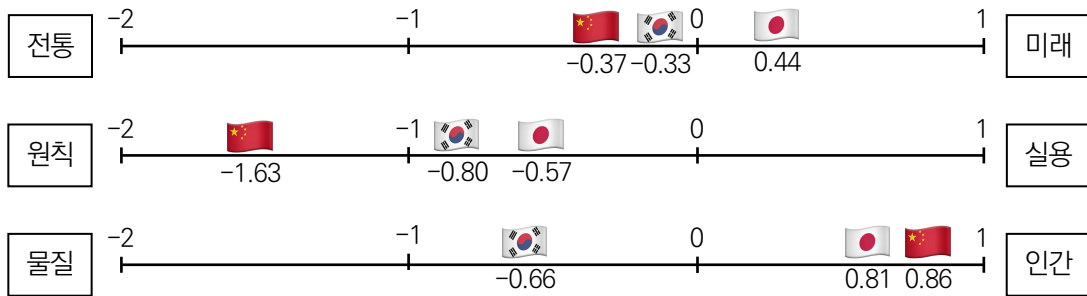


서울 시민, 도쿄와 북경 시민보다 돈(물질) 선호 경향 뚜렷!

- ▶ 서울, 북경, 도쿄 시민들에게 ‘전통과 미래’, ‘원칙과 실용’, ‘물질과 인간’ 중 어느 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어 점수로 평가하게 한 결과, 서울은 도쿄, 북경과 비교했을 때 물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고, 도쿄와 북경 시민들은 물질보다는 인간을 중시한다고 응답했다.
- ▶ 또, 서울과 북경 시민의 경우 전통과 미래 가운데 전통을 선택한 데 반해 도쿄 시민은 미래를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동북아 3개국 도시 시민 가치관** (점)

🇰🇷 서울 🇨🇳 북경 🇯🇵 도쿄
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/서울대 아시아연구소, 한국인의 신념과 가치 조사(2) 보고서: 15개국 가치관 비교를 중심으로, 2023.02.23. (15개국 주요 도시 거주 만 18세~59세 남녀 각 국가별 700명씩 총 10,500명, 온라인 조사, 2022.11.04.~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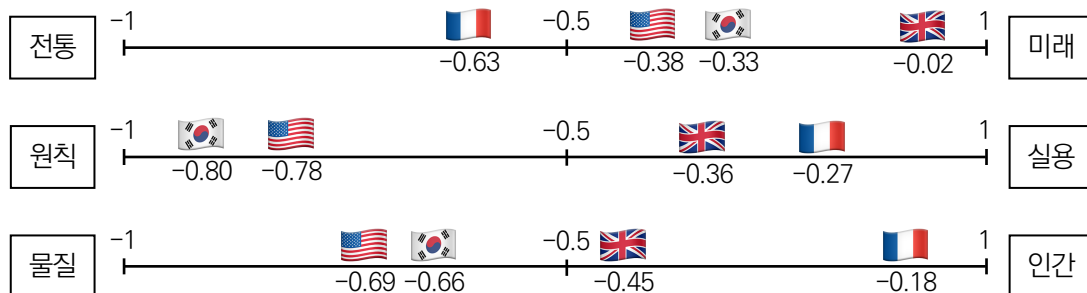
**국가 간 차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실측보다 상대적 위치를 중점적으로 표시했음을 유의
Note) -2점에서 2점으로 5점 척도임

◎ 미국 뉴욕 시민의 가치관, 서울과 매우 유사!

- ▶ 아시아 외 지역인 미국 뉴욕, 영국 런던,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의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위와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, 세 도시 모두 공통적으로 미래보다는 ‘전통’, 실용보다는 ‘원칙’, 인간보다는 ‘물질’을 중시한다고 응답했다. 파리의 경우는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.
- ▶ 한편 서울과 뉴욕의 시민들은 약간 전통적인 경향이 있으면서 원칙을 중시하고, 물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었다.

[그림] 서울, 뉴욕, 런던, 파리 가치관 (점)

🇰🇷 서울 🇺🇸 뉴욕 🇬🇧 런던 🇫🇷 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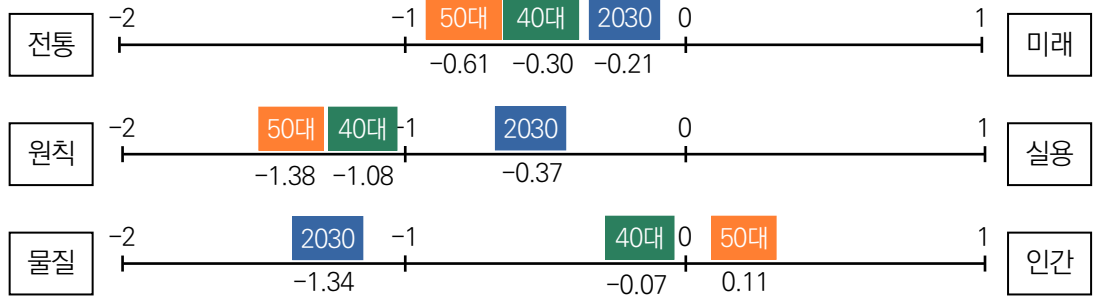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/서울대 아시아연구소, 한국인의 신념과 가치 조사(2) 보고서: 15개국 가치관 비교를 중심으로, 2023.02.23. (15개국 주요 도시 거주 만 18세~59세 남녀 각 국가별 700명씩 총 10,500명, 온라인 조사, 2022.11.04.~14)

◎ 서울의 세대별 가치관 차이, 2030세대 ‘물질 선호’, 50대는 ‘인간적 가치’ 추구!

- ▶ 서울 시민의 세대별 가치관을 살펴보면 2030세대에서는 물질 선호 경향이 강한 게 특징적이었고,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과 원칙을 추구하고, 물질보다 인간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성을 보였다.

[그림] 서울 시민의 세대별 가치관 비교 (점)
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/서울대 아시아연구소, 한국인의 신념과 가치 조사(2) 보고서: 15개국 가치관 비교를 중심으로, 2023.02.23. (15개국 주요 도시 거주 만 18세~59세 남녀 각 국가별 700명씩 총 10,500명, 온라인 조사, 2022.11.04.~14)